



# 무적 박인비 '인비슬램' 노린다

■ 웨그먼스 챔피언십 연장 우승

메이저대회 2연속 석권

LPGA 무대 독주 체제로

신지애·최운정·유선영·양희영 5위

2013시즌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메이저대회에서 2연승을 거둔 박인비(25·KB금융그룹)가 '맏언니' 박세리(36·KDB금융그룹)도 뛰어넘을 태세다.

세계랭킹 1위인 박인비는 10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주 피츠퍼드 로커스트힐 골프장(파72·6534야드)에서 열린 웨그먼스 LPGA 챔피언십에서 최종합계 5언더파 283타로 카트리나 매튜(스코틀랜드)와 동타를 이룬 뒤 3차 연장전 끝에 우승을 차지했다. 우승 상금은 33만7500 달러(약 3억7700만원)

이로써 박인비는 올 시즌 4승을 거두며 LPGA 투어에서 가장 많은 우승을 쌓았다. 통산 7승, 메이저대회는 3승째다.

특히 올해 열린 2개 메이저대회를 휩쓸어 사실상 '독주 체제' 굳히기에 나섰다.

LPGA 투어에서 단일 시즌내 메이저대회 백투백 우승(연승)을 이룬 것은 2005년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이 크라프트 나비스코 챔피언십, LPGA 챔피언십을 석권한 이후 8년 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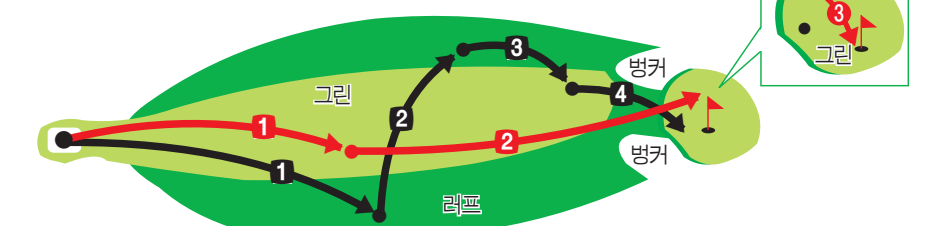
박인비가 안정된 경기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시대를 열어젖히면서 한국 선수중 LPGA 투어에서 가장 뚜렷한 발자취를 남긴 박세리의 각종 기록에 다가서고 있다.

박세리는 1997년 미국 무대에 데뷔, 이듬해 LPGA 챔피언십에서 한국인 최초로 메이저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이어 바로 다음 메이저대회였던 US여자오픈에서는 '맨발 투혼'의 감동을 연출하며 정상에 올라 한 해에만 두 번 '메이저 퀸'에 올랐다.

이후 박세리는 2001년 브리티시 여자자

'인비슬램'은 2001년 4월 타이거 우즈가 4대 메이저 골프 대회를 연속 제패해 만들어진 신조어 '타이거슬램'을 빗댄 표현. 골프에서 본래 '그랜드슬램'은 1년 내에 4대 메이저 대회를 석권하는 경우를 뜻한다.

■ 연장 세번째 홀 상황도 18번홀-파4·369야드



박인비→1 티샷 페어웨이 2 146야드 남기고 그린에 올림 3 3m버디퍼트 성공 카트리나 매튜→1 티샷 오른쪽 나무아래 러프 2 138야드 남기고 왼쪽 러프 3 80야드 남기고 오른쪽 실퍼 4 핀 2.5m에 붙임, 퍼팅없이 승부 종료

폰, 2002년 LPGA 챔피언십, 2006년 맥도널드 LPGA 챔피언십 등 총 5회 메이저대회를 제패했다.

박세리가 한해 2차례 메이저대회 우승한 것은 1998년이 유일한데, 박인비는 이미 이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올해부터는 예비양 마스터스가 메이저대회로 추가되면서 우승 기회가 한 번 더 생긴 만큼 박인비는 '한국 선수 시즌 최다 메이저 대회 우승' 기록을 날릴 수 있다.

박인비는 US여자오픈(2008년), 크라프트 나비스코 챔피언십, LPGA 챔피언십(이상 2013년)에서 우승, 박세리가 이루지 못한 '카리어 그랜드슬램'에도 한발 더 다가갔다.

LPGA 홈페이지에 따르면 박인비는 올해 남은 브리티시 여자오픈과 에비앙 마스터스 중 한 대회에서 우승하면 카리어 그랜드슬램을 완성한다.

시즌 우승 횟수에서도 박인비는 박세리가 2001, 2002년 남긴 5승에 1승만을 남겨뒀다.

당시 박세리는 시즌 초반부터 막바지에 걸쳐 승수를 쌓았으나, 박인비는 시즌 전체 일정의 절반가량인 13개 대회만에 4승을 쓸 여담이 페이스가 훨씬 빠르다. 이 기세가 계속된다면 평소 박인비가 목표로 밝혀 온 '올

해의 선수상'도 꿈이 아니다.

아직 한국 선수 중에는 LPGA 투어 올해의 선수상 주인공이 배출된 적이 없다. 박세리도 명예의 전당까지 입성했지만, '올해의 선수상'은 받지 못했다.

지난해에는 박인비가 스테이시 루이스(미국)와 막판까지 경쟁을 이어갔으나, 2위에 머문 바 있다.

하지만 올해는 박인비가 이 대회까지 포함, 191점으로 2위 수잔 페테르센(노르웨이·87점), 3위 루이스(85점)를 크게 따돌렸다.

지난해 2승을 올렸던 박인비는 준우승도 6차례나 했으나, 올해는 기회가 오면 확실하게 승수를 쌓으면서 '최강자'의 자리를 굳히는 모양새다.

박세리의 '맨발 투혼'을 보면서 골프선수가 되리라 결심했다는 '세리 키즈' 박인비가 '우상'의 업적을 뛰어넘어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지 관심이 쏠린다.

한편 최운정(23·불빅), 유선영(27), 신지애(25·미래에셋), 양희영(24·KB금융그룹)은 3언더파 285타를 쳐 공동 5위로 대회를 마쳤다. /연합뉴스

## 최강희호, 오늘밤 브라질행 티켓 잠을까

우즈베크와 서울서 월드컵 최종예선 7차전

한국 이기고, 레바논이 이란 꺾으면 직행

수비불안 탓에 탈도 많고 탈도 많은 최강희호가 마지막 카드를 꺼낸다.

최강희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11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우즈베크스탄과 2014 브라질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7차전을 치른다. 한국은 최종예선 6경기에서 승점 11(골득실차 +6)을 쌓아 우즈베크스탄(승점 11·골득실차 +2)에 골득실에서 앞서 A조 선두를 달리고 있다.

우즈베크스탄과 승점이 같고, 3위 이란(승점 10·골득실차 +1)에 승점 1차로 쫓기고 있어 이번 경기는 본선 진출 여부를 판가름할 중요한 일전이다.

◇김남일·박종우 1차 저지선 형성=한국 축구 대표팀은 11일 우즈베크스탄전에 나설 수비진의 윤곽을 잡았다.

김남일(인천 유나이티드), 박종우(부산 아이파크)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포백라인을 보호하기로 했다. 좌우 풀백에는 김치우(FC서울), 김창수(가시와 레이솔), 센터백에는 곽대휘(알사바), 김영권(광저우 헝다)이 포진한다. 이번 수비진에서 불박이는 곽대휘 한 명 밖에 없을 정도로 구성이 환골탈태에 가깝다.

이번 일전에서 스타일이 비슷한 출동 미드필더 박종우, 김남일이 나란히 배치되는 것은 투톱 공격수를 쓰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최강희 감독은 그동안 즐겨 구사한 4-2-3-1 포메이션 대신 4-4-2 전형을 우즈베크스탄과의 일전에 쓰기로 했다.

앞선의 공격력을 강화하지만 중앙 미드필더의 수가 3명에서 2명으로 줄어 중원의 수비력 약화가 우려된다. 그 때문에 공격 성향이 짙은 김보경(카디프시티)보다 수비에 치중하는 중앙 미드필더인 김남일, 박종우를 포진한 것이다.

우즈베크는 세르베르 제과로프, 티무르 카파제, 아딜 아흐메도프 등 중앙 미드필더들의 개인기와 조직력이 만만치 않다. 박종우, 김남일이 하리 싸움에서 어떻게 누를지가 승부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김창수, 김치우의 강력한 대인마크로 한국이 경기를 안정적으로 끌고 가려면 반드시 필요하다.

우즈베크의 좌우 풀백인 자수르 하사노프, 산자르 투르수노프는



돌파력이 뛰어나고 크로스가 위협적이다. 한국은 지난해 9월 우즈베크스탄과의 최종예선 원정 3차전에서 이들의 오버래핑 때문에 아찔하고 굴욕적인 장면을 자주 노출했다.

김영권은 수비라인을 지휘하는 부동의 센터백 곽대휘와 처음으로 중앙 수비에 서 호흡을 맞춘다. 그

가 장기간 스피드와 효과적인 전진 패스를 우즈베크를 상대로 얼마나 보여줄지 기대된다.

알렉산더 게인리히나 울름벡 바카에프처럼 기술적인 한 방을 갖춘 우즈베크 골잡이들의 위협적인 움직임도 반드시 차단해야 한다.

최강희호는 최종예선에서 세트피스 실점이 고질병으로 굳어지면서 저급침묵 불안한 처지에 몰렸다. 우즈베크와의 3차전, 이란과의 4차전, 레바논과의 6차전에서 코너킥이나 프리킥으로 골을 허용해 승점을 날렸다.

◇한국-레바논 동반승리때 한국 본선 직행=최근 한국의 발목을 잡은 레바논이 이란에 일격을 가할지 주목된다.

레바논은 12일 0시 30분(한국시간) 이란 테헤란의 아자디 스타디움에서 이란과의 국제축구연맹(FIFA)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예선 8차전을 치른다. 이 경기는 한국의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란이 승점 10으로 한국, 우즈베크스탄(이상 11점)에 이어 A조 3위를 달리는 강력한 경쟁국이기 때문이다.

아시아 최종예선에서는 조 2위까지가 월드컵 본선에 직행한다. 이 때문에 한국과 레바논의 동반 승리는 최고의 시나리오다.

한국이 1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우즈베크와의 7차전에서 이기고 레바논이 이란을 꺾으면 한국의 월드컵 본선 직행이 확정된다. 이란이 승점 10에 머물고 한국이 승점 14를 기록해 3위 이란과의 최종전에서 패배해도 최소 조 2위를 확보한다.

한국은 지난 5일 레바논과의 6차전에서 1-1로 뼈아픈 무승부를 겪었지만 이제는 레바논을 응원할 상황이 왔다. /연합뉴스



## 나달·윌리엄스 프랑스 오픈 테니스 우승

'클레이코트의 황제' 라파엘 나달(4위·스페인)이 프랑스 오픈 테니스대회(총상금 2101만7000 유로) 남자 단식에서 8번째 우승이라는 위업을 달성했다.

나달은 10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막을 내린 대회 남자단식 결승에서 같은 스페인의 다비드 페레르(5위)를 3-

앞서 지난 8일 열린 여자단식 결승에서는 '흑진주' 세리나 윌리엄스(1위·미국)가 마리아 샤라포바(2위·러시아)를 2-0(6-4 6-4)으로 꺾고 11년 만에 우승컵을 품에 안았다. 우승 상금은 150만 유로(약 22억2000만원)다.

윌리엄스는 프랑스 오픈 두 번째 정상에 올랐다. 그는 2002년 언니 비너스 윌리엄스(32위·미국)를 꺾고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이후 10년이 넘도록 우승의 연을 맺지 못했다. 이는 윌리엄스가 호주오픈 5회, 윌블던 5회, US오픈 4회 우승을 이룬 점에 비춰볼 때 초라한 성적이다. 지난해에는 대회 1회전에서 탈락하는 이번의 희생자가 되기도 했다. 윌리엄스의 메이저대회 우승 기록은 16차례로 늘어났다. 아울러 윌리엄스는 샤라포바를 상대로 14승2패로 압도적인 우위를 지켜나갔다.

윌리엄스는 2005년부터 샤라포바와 겨룬 13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따내 천적으로 군림하고 있다. 자신의 최다 연승 기록도 31경기로 늘렸다. /연합뉴스



0(6-3 6-2 6-3)으로 꺾고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나달은 프랑스오픈에서 8번째 정상에 올랐다. 남자 선수 가운데 같은 메이저대회에서 8차례 우승한 것은 나달이 처음이다. 2005년부터 4년간 정상을 지킨 나달은 4강에서 탈락한 2009년을 제외하고, 2010년부터 다시 4회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올해에도 나달은 이 대회에서 명성에 걸맞은 활약을 이어갔다. 나달은 프랑스오픈 60경기에서 단 1패만을 기록했다.

아울러 이날 우승으로 7개월간의 무릎 치료 후 제 실력을 완전히 회복했음을 알렸다. 2월 복귀한 후로 나달은 45경기에서 43승을 챙기며 무서운 상승세를 이어갔다.